

제 32 회 무역의 날 기념식

— 금탑산업 훈장에 현대전자산업(주) 수상 등 본회 회원사 수상자 —

제32회 무역의날 기념식이 지난 11월 30일 오전 10시 김영삼대통령을 비롯해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구평희 무역협회장, 박용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무역업계 대표 및 근로자와 유관기관 임직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센터 올림피아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출 1천억달러 달성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정몽헌 현대전자산업 회장과 강도원 미경사 대표이사 등 4명이 수상했다.

또 본회 회원사인 이형도 삼성전기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이창세 실트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김재선 LG반도체 상무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총 632명의 수출유공자가 산업훈장·산업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올해 100억달러 이상을 수출한 삼성전자와 현대종합상사 2개사가 「100억불 수출의 탑」을 받는 등 총 525개업체가 「100만불 탑」이상의 각종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다음은 본회 회원사 수상업체 명단이다.

- ◆ 금탑산업훈장 현대전자산업(주) 대표이사 정몽헌
- ◆ 은탑산업훈장 삼성전기(주) 대표이사 이형도
- ◆ 동탑산업훈장 (주) 실트론 대표이사 이창세
- ◆ 철탑산업훈장 LG반도체(주) 상무이사 김재선
- ◆ 석탑산업훈장 (주) 대우 상무이사 이부영
- ▲ 산업포장 (주) 팬택 대표이사 박병엽
- 한국듀폰(주) 대표이사 김종세
- 아남산업(주) 사원 박진이
- (주) 뉴맥스 대리 이기성
- 오리온전기(주) 사원 방세영
- ▲ 대통령표창 (주) 윈텔 대표이사 김인배

- 택산전자(주) 대표이사 김창규
- 현대종합상사(주) 부장 이경수
- (주) 엘지상사 부장 배기성
- 기린전자(주) 사원 박옥심
- (주) 남성 차장 현시열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부장 남중인
- ▲ 국무총리표창 광전자반도체 대표이사 조장연
- (주) 신도리코 과장 김경동
- (주) 신우음향 계장 함영규
- 한국듀폰(주) 대리 김명선
- (주) 실트론 계장 정용성
- 태일정밀(주) 대리 이영태
- (주) 대우 부장 박용수
- (주) 선경 실장 이종률
- 삼성전자(주) 과장 이종화
- 두산상사 과장 문민수
- 삼성전기(주) 과장 황성목
- ▲ 무역협회회장 택산전자(주) 대리 박종식
- LG정보통신(주) 이사 강창형
- (주)한양전자콘트롤과장 김인영
- 오성전자 태국공장 대표이사 왕윤식
- 현대종합상사(주) 박세용
- 삼성전자(주) 김광호
- 삼성전기(주) 이형도
- (주) 신도리코 우석형
- (주) 실트론 이창세
- 한국듀폰(주) 김종세
- (주) 윈텔 김황배
- (주) 팬택 박병엽
- 택산전자(주) 김창주
- (주) 한국성산 이동춘
- (주)한양전자콘트롤 이기하

피코형 박막 헤드 양산 갑일전자

갑일전자(대표 황희선)가 미국 센스타사와 협력을 통해 기가급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에 주력 채용되는 피코형 박막헤드를 국내 처음으로 본격 양산한다.

갑일전자는 최근 미국의 마그네틱헤드 관련업체인 센스타사와 박막헤드의 기초 소재인 웨이퍼공급 및 공동판매 등에 관한 포괄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내년 3월부터 피코형 박막헤드를 본격 양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피코형 박막헤드는 하드디스크를 읽는 슬라이더의 크기가 표준형(풀사이즈)박막헤드의 30%에 불과하며, 기가급 HDD에 주로 채용된다.

갑일전자는 우선 5백만 달러를 단독 투입, 경기 김포공장을 월 20만개 규모의 기가급 HDD용 피코형 박막헤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내년초까지 구축하고 센스타사로부터 웨이퍼를 공급받아 박막헤드 1차 가공품인 슬라이더에서부터 헤드집벌어셈블리(HGA)·헤드 스택 어셈블리(HSA)까지 일관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갑일전자는 이들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센스타·맥스터·웨스턴 디지털 등 미국 HDD업체에 주력 공급할 계획이다.

휴대폰 수정발전기 첫 개발

고니정밀

고니정밀(대표 신현욱)이 휴대폰에 주로 사용되는 표면실장부품(SMD) 타입의 온도보상형 수정발전기(TCXO)를 업계 처음으로 개발했다.

고니정밀은 1년6개월여의 연구 끝에 최근 SMD타입 TCXO의 시제품 개발을 완료, 휴대폰업체에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시제품에 대한 반응에 따라 이달중에 양산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니측은 「국내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미국 판매법인인 사로닉스사로부터 이 제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생산 규모는 최소한 월 2만~3만개선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에는 UM4 2개 내지 3개, SAW필터 1개, 수정필터(MCF) 2개, SMD형 TCXO 1개 등 다수의 수정부품이 채용되는데 그동안 휴대폰 업계의 각기 다른 특성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일본 NDK·도요코·도요덴파 등에서 전량 수입해 왔다.

TRS 전국 자가망 구축 대우통신

대우통신이 오는 2000년까지 총 2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그룹용주파수공용통신(TRS)전국자가망을 구축한다

대우통신(대표 류기범)은 최근 정보통신부로 부터 15개 채널의 TRS주파수 사용허가를 획득, 오는 96년 7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경인지역에서 자가 TRS서비스를 본격개시하는 등 TRS전국자가망을 본격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통신은 이를 위해 1차년도인 96년에는 서울지역 2개, 인천지역 1개 등 3개의 이동중계국을 건설하고 차량용 단말기 1천대 및 휴대형 단말기 2천대 등 모두 3천대의 이동무선국을 운영할 예정이다.

100PPM 인증 획득

대덕산업

대덕산업이 국내 PCB업체로는 처음으로 공업진흥청의 100PPM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100PPM인증은 공진청이 제품 불량률이 100만개중 100개 이하인 업체의 품질을 인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 새로운 제도로 PCB 업계에서 이 대덕산업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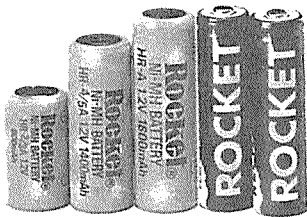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PCB의 고밀도 파인패턴화가 급진전되고 있는데다 첨단공법을 채용, 제품불량률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

황을 감안할때 이번 대덕산업의 100PPM인증 획득은 보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덕산업은 이번 100PPM 인증획득을 계기로 대외 신뢰도 향상에 필수적인 ISO9002 인증도 추진하는 등 각종 품질인증에 나설 계획이다,

소형 원통 니켈 수소 전지 「KT」인증 획득

로켓전지



로켓전지(대표 김종성)가 국내 전지업체로는 처음으로 소형 원통 니켈 수소전지에 대한 국산 신기술(KT) 인증을 획득했다.

로켓전지는 지난 7월초부터 과학기술처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산신기술 인정제도에 니켈수소전지의 기술인증을 추진, 3개월 동안 3차에 걸친 심사결과 95년 하반기 국산 신기술로 선정돼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순슨강당에서 KT 인정서를 받았다.

로켓의 니켈수소전지는 현재 2차전지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

율을 보이고 있는 표준형 니카드 전지에 비해 2배 이상 용량이 클 뿐 아니라 전압이 1.2V로 니카드 전지와 동일, 호환성이 있어 니카드 중심의 기존 2차전지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펜티엄 주기판 개발

비티씨 코리아

(주)비티씨코리아(대표 신영현)는 사운드와 VGA카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펜티엄 주기판을 개발했다.

비티씨코리아는 주기판에서 멀티미디어 기능을 발휘토록 설계된 멀티미디어 주기판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최근 64비트 VGA카드와 16비트 웨이브레이블방식의 사운드 카드 기능도 수행하는 펜티엄 주기판(모델명 5SBA)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180MHz급 펜티엄 CPU까지 탑재가 가능토록 설계된 이 주기판은 SIS사의 「551X」시리즈 칩셋과 64비트 그래픽가속 기능을 지닌 그래픽칩 「6205」, ESS사의 사운드칩인 「1788」이 실장되어 있다.

특히 이 주기판은 주기판에 탑재된 주메모리를 VGA카드용 메모리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법인 「셰어메모리」기법을 채택했으며 소프트웨어 MPEG도 가능

하다.

국내 최초 화상통신PC 개발, 시판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대표 이정식)는 국내 최초로 PC 화상통신과 전자철판 그리고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드림시스(DREAMSYS)를 개발 완료하고 시판에 들어간다.

꿈과 시스템이 결합되었다는 뜻으로 명명된 드림시스는 PC 기본 환경의 수준을 데이터만 전송할 수 있던 기존의 PC 통신 환경에서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지원하는 단계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일반 PC사용자들은 수천만원 이상의 고가 통신장비에서나 지원되던 PC화상통신 기능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PC의 사용영역이 크게 넓어졌다.

동사가 발표한 드림시스의 주요 기능으로는 화상전화 및 전자철판 기능외에도 리모콘, 웨이크업, 스케줄러, 인스탠트온, 음성명령어 인식, 인터넷 직접접속 등 기존에 발표된 각종 신기술이 모두 인스톨되어 있어 멀티미디어 PC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의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또 윈도95를 OS로 지원하는 드림시스는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한 플러그앤플레이 시스템으로



MS사로부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P&P를 지원하는 랜카드 등의 옵션카드를 주변기기로 설치할 경우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초보자도 기본적인 컴퓨터의 이해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지(Easy)컴퓨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드림시스의 기본적인 사양은 펜티엄 100, 120MHz CPU를 채택해 멀티환경에 요구되는 고성능을 소화하고 기본메모리 8~16MB, 하드디스크를 1~1.6GB, 4배속 CD-ROM 드라이브, TV-MPEG 비디오 오버레이보드 그리고 28, 800 bps DSVD 팩스모뎀을 채택해 국내에서 시판되는 PC중 가장 강력한 사용환경을 구축했다.

업계에 따르면 PC화상통신을 지원하는 동사의 드림시스가 일반 PC사용자들의 컴퓨팅환경을 한단계 끌어 올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

다.

사운드기능 강화한 모빌라이프 II 개발 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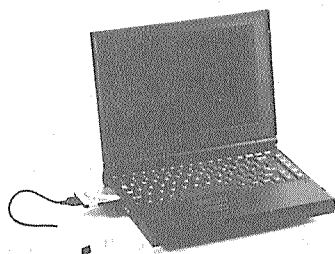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대표 이정식)는 사운드 기능을 강화한 노트북 신제품 모빌라이프 II 600T를 발표하고 시판에 들어간다. 486DX4-100 CPU를 기반으로 한 신제품은 10.4인치 크기의 TFT-LCD와 8MB의 메인메모리, 540MB의 하드디스크 그리고 트랙포인트를 내장했다.

모빌라이프 II 600T의 특징은 사운드블러스터 호환의 오디오 시스템과 스피커, 고성능 마이크로폰을 기본 내장해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게 세팅되었다. 또한 노트북 확장을 위한 국제표준인 PCMCIA 슬

롯을 2개 내장하여 LAN, SCSI, HDD 카드 등을 쉽게 장착할 수 있다. 그리고 내장된 트랙포인트는 그래픽 사용자를 위한 고감도의 포인팅 환경을 지원한다.

10.4인치 대형 TFT-ColorLCD를 채용함으로써 DSTN LCD보다 선명한 화질과 칼라를 확보하는 한편 290*215*40mm의 컴팩트한 크기에 2.5kg의 무게로 휴대가 간편해졌다. 모빌라이프 II 멀티미디어 노트북의 가격은 239만원(부가세 별도)으로 국내 시장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를 기록해 노트북의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대용량 MLCC 개발

삼성전기

삼성전기(대표 이형도)는 그간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온 대용량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자체 개발에 성공, 이달부터 월 평균 1,000만개 규모로 양산한다고 밝혔다.

삼성전기가 지난해 1월부터 총

1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이 제품은 기존 MLCC가 15~20미크론 두께의 세라믹층을 70층까지 쌓았던 것에 비해 6~8미크론의 세라믹층을 100층 이상 적층, 전기 저장 능력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는 신제품이 이같은 특성으로 크기가 작으면서도 의 전기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핸드폰·노트북 PC·자동차 엔진 제어 장치 등 그간 일본산 제품에 전량 의존하던 시장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300억원 상당의 수입 대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는 통상 용량이 전해-탄탈-MLCC의 순이며 기존 국내에서 생산됐던 MLCC는 칩 부품이기는 하지만 전기저장 용량이 작아 탄탈급의 용량을 요구하는 핸드폰·노트북 PC 등에는 일본 제품을 사용해 왔다.

삼성전기는 특히 이번에 개발한 1.6×0.8mm 크기의 1608모델과 3.2×1.6mm 크기의 3216모델의 충전 특성(F특성)을 각각 0.68마이크로패럿과 4.7마이크로패럿까지 높인 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10마이크로패럿까지 향상시킨 제품을 개발, 대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형 음극 기술 개발

삼성전관

삼성전관(대표 손 욱)은 기존

브라운관의 수명을 3배 가까이 늘릴 수 있는 전자총의 「새로운 음극(New Cathode)」기술 개발에 성공, 자사가 공급하는 전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관이 지난 93년 연구에 착수, 모두 30억원을 투입해 최근 개발에 성공한 신형 음극인 지금까지 브라운관에 사용되던 「산화물(Oxide)음극」에 새로운 복합물질 분자 단위로 균일하게 분산시켜 전자방출 물질의 증발을 조절하는 기술이다.

이 회사는 브라운관 수명을 결정짓는 전자총에 신기술을 적용, 성능 테스트를 거친 결과 약 15,000 시간이었던 수명이 50,000시간까지 획기적으로 향상됐으며, 이를 세트인 TV나 모니터의 수명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에는 24시간 시청 기준으로 약 5년이었던 수명이 1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관은 이 기술이 브라운관의 수명 연장뿐 아니라 전류 밀도를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어 화질과 해상도의 개선도 가능한 점을 감안, 현재 일부기종에 적용하던 것을 자사 전 모델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트북용 CD-ROM

드라이브 개발

삼성전자

멀티미디어 노트북에 탑재되는 초박형 4배속 CD롬 드라이브가 국내 처음 개발됐다.

삼성전자는 2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노트북에 탑재할 수 있는 초박형 4배속 CD롬 드라이브를 개발, 내년 4월부터 본격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트북용 CD롬 드라이브로는 국내 처음 개발된 이 제품(모델명 SCR-2630)은 높이 15.7mm, 가로 104.5mm, 세로 135.8mm의 초박형으로 설계됐다.

특히 핵심부품 및 PCB의 회로를 5V 단일전원으로 설계해 제품의 저전력화를 이룩해 정상 가동시는 2.0W의 전력을 최대속도시에는 3.3W의 전력을 각각 소비, 노트북용 CD롬 드라이브 선진업체보다 전력 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제품은 키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기술을 채택했으며 6배속, 8배속 등 차세대 노트북용 CD롬 드라이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의 저전력화를 구현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노트북용 4배속 CD롬 드라이브 개발을 계기로 CD롬 드라이브 사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컬러 잉크젯 2중

시판

신도리코

신도리코(대표 우석형)가 600dpi 해상도의 저가 및 중저가 컬러잉크 제트프린터 「칼라 캡」 2종을 새로 발표하고 시판에 돌입했다.

신도리코가 이번에 발표한 신제품들은 컬러 흑백잉크 교체형(1펜)인 흑백 잉크 동시장착형(2펜)인 「칼라캡 330」으로 600dpi의 해상도를 구현하며 가격은 각각 30만원대, 40만원대인 저가제품들이다.

특히 이 제품들은 구동소프트웨어로 「윈도 파인드라이버」가 제공돼 윈도 환경에서 컬러의 농도·명도·해상도를 비롯해 용지와 잉크의 상태 등 프린터의 모든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IC카드 사업 본격화

신호테크

컴퓨터용 컬러모니터 생산업체인 신호테크(대표 이순욱)가 집적회로(IC)카드 사업에 본격참여한다.

신호테크는 올 5월 총 25억원을 투자해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율리에 1,000여평의 생산공장을 신축해 내년 1월부터 연산 500만장 규모의 IC카드를 생산하는 한편 내년 후반기 중 자체개발한 IC카드 판독기도 본격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호테크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IC카드 시제품의 생산을 완료한데 이어 IC카드 응용 소프트웨어(SW)를 개발했고 지난 7월부터 유럽의 모카드회사와 공동으로 칩 운용체계(COS : Chip Operating System)기술개발에 착수, 오는 연말께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국내에 기술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선보일 IC카드는 기존 IC카드가 염화비닐 계통의 PVC카드로 재활용이 불가능해 환경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나 ABS수지카드를 생산, 이같은 단점을 줄일 수 있다고 신호테크는 설명했다.

러시아 반도체시장

진출

아남산업

아남산업(대표 황인길)이 러시아에 진출했다.

아남산업은 미현지법인인 암코사를 통해 백러시아 인테크랄사와 각각 100만 달러씩 투자, 민스크시에 합작법인을 설립키로하고 우선 인테크랄사의 국영반도체공장을 인수해 PDIP·SOIC 등 범용민생용 반도체를 내년부터 월 20만개씩 조립생산키로 했다.

아남산업은 「이번 러시아진출은 생산기지로서의 시범운용과 함

께 유럽시장공략의 교두보로 활용키 위한 것으로, 범용제품의 생산이 성공적일 경우 생산능력확대와 함께 품목 다각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0.5 미크론 주문형

반도체 국산화

LG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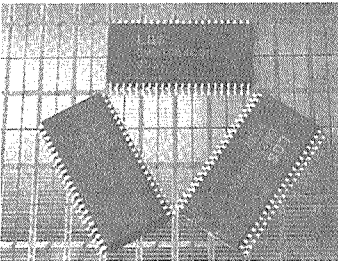
LG반도체(대표 문정환)가 국내 처음으로 회로선폭 0.5미크론의 주문형반도체(ASIC) 설계 및 제조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0.6미크론 ASIC 개발에 이은 이번 0.5미크론 제품 개발은 메모리분야에서 축적한 설계 기술과 라이브러리 개발을 통해 성공한 것으로, 그동안 국내반도체산업의 최대 취약부문으로 지적돼온 비메모리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한 0.5미크론 ASIC은 칩 내부절연막의 폭과 길이를 축소하면서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미세공정기술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탠더드셀의 2층·3층 금속구조인데 최대 사용가능 게이트수도 0.6미크론 ASIC에 비해 50%이상 집적도가 향상된 120만 게이트에 이르며 다게이트

용·다핀용·고접속용으로 적합하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

64M 마스크롬 개발 LG반도체



LG반도체(대표 문정환)가 비휘발성 메모리 제품중 집적도가 가장 높은 64M 마스크롬을 개발했다.

데이터 읽기 전용 비휘발성 기억소자로 최근 레이저프린터를 비롯해 워크스테이션·게임기·개인용정보단말기(PDA)·휴대형PC·전자수첩 등에 폭넓게 응용되는 이 제품은 신문 512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알파벳 800만자(한글 400만자) 분량의 정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대용량 메모리 제품이다.

특히 이 제품은 상보성금속산화막(CMOS)공정을 이용해 0.4미크론(백만분의 1m)의 미세회로 선폭으로 설계했으며, 고속동작이 필요한 경우 최고 50나노초(10억분의 1초)까지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페이지모드를 추가했고, 그간 축적된 공정 및 설계기술로 양산성과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켰

다고 LG반도체 측은 밝혔다.

고해상 LBP 시판 LG전자

LG전자(대표 이현조)가 600dpi(인치당 도트수) 해상도로 분당 6장을 출력하는 A4크기 레이저프린터(LBP) 「레이저스타 660J」를 발표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판에 나선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레이저스타 660J」는 마이크로 토너 및 LSU(Laser Scanning Unit)를 사용, 600×600dpi의 해상도를 실현했다.

또 화면상에서 출력방향과 용지장수 및 크리기 등을 조정할 수 있고 자동으로 에뮬레이션을 전환해주는 AES기능도 지원, 사용자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레이저스타 660J」는 전력소모량을 16W로 줄이고 토너절약 모드인 이코노모드를 설정, 전력 및 소모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15인치 스피커 일체형 모니터 개발

LG전자

LG전자(대표 이현조)는 국내 최초로 15인치 스피커 일체형 모니터의 개발에 성공, 최근 시판에 들

어갔다.

이번에 개발된 15인치 스피커 일체형 모니터는 LG생산기술원과 LG전자관OBU가 공동개발에 성공한 안티 하울링 CDT를 채용해 스피커 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니터의 떨림(하울링) 현상을 최소화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14인치 스피커 일체형의 경우 모니터에 스피커 일체형의 경우 모니터에 스피커를 부착해도 하울링 현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이 용이했지만 15인치 이상 모니터에는 하울링현상이 심해 세계적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모니터 유형의 변경없이 내부구조만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PC에 곧바로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C카드 칩 운용체계 개발

LG정보통신

LG정보통신이 집적회로(IC)카드의 핵심기술인 칩운용체계(COS : Chip Operating System)를 개발했다.

LG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1년여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 IC카드 운용시스템인 COS(모델명 LG-COS)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LG-COS는 국제표준인 ISO 규격을 수용하는 제품으로 금융결제 위원회, 유통망용 SVC(Store Value Card), 금융용 VME(Visa Master Europay) 내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사양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모듈타입으로 설계됐다. 또한 이 제품은 EEP 칩내에 명령 및 기능을 추가 등록, 수행할 수 있으며 자체진단 명령어가 있어 항상 카드상태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IC 카드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암호화 규격인 DES(Data Encryption Standard), TRIPPLE DESE 등 각종 사양에 맞는 최선의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LG정보통신은 앞으로 이동통신 등 고객의 요구에 만족하는 COS의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의 진출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이로써 LG정보통신은 자체개발한 PC-COS, EFT-POS, 판독기 등 IC카드 관련 각종 단말기와 IC카드 운용 SW 기반기술을 함께 갖추게 돼 96년 유통시장개발에 따른 외국업체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고속 랜 카드 개발

인터링크시스템

인터링크시스템(대표 이명근)

이 고속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근거리통신망 카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ILS-300PCT」로 이름붙은 이 제품은 국내 개발제품으로는 처음으로 32비트 PCI 버스 방식을 채택,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IEEE 802.3 10베이스T」등 각종 네트워크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노벨사의 네트워크 제품인 NE2000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등 호환성도 뛰어나다.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동시에 복수이 데이터를 처리, 통신지체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플뉘플렉스 기능도 갖추고 있다.

2차 전지 사업 본격화

태일정밀

태일정밀(대표 정강환)이 내년 상반기중 춘천연구소내에 월 10만개 규모의 리튬이온 2차전지 생산라인을 갖추는 등 2차전지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회사는 지난 1년간 100억원을 투자, 최근원통형 리튬이온 2차전지의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국내외 휴대폰 업체에 평가를 의뢰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일은 2차전자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국내 업체중 기술개발 및 양산체제 확

립면에서 가장 앞서게 됐으며 당초 오는 97년으로 예정됐던 생산능력 월 100만개 수준의 양산체제 구축시기도 예상보다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SGS사 ISO 9001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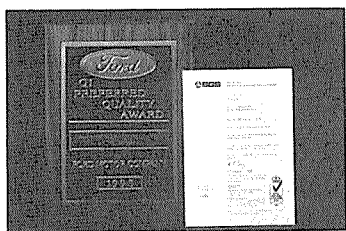
획득

태평양 금속

고도성장을 이룩했던 1970년 수출주도형 성장정책과 전자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출발한 태평양 금속은 음향기기 및 각종 전자제품에 필수 불가결한 영구주조자석과 웨라이트자석 및 그 원료인 웨라이트파우더 제품을 개발코져 세계적인 자성재료메이커인 일본 히다찌금속과 기술 제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자성재료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여 자성재료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켰음은 물론 창립 2년만에 800만 달러의 수출을 실현함으로써 수출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웨라이트자석의 주원료인 웨라이트파우더 생산을 시작하여 알니코자석보다 저렴한 웨라이트자석을 생산함과 동시에 음향기기 이외의 모토용, 전자레인지를 등 산업용으로의 제품 다양화를 추진하여 국내 전자산업 발전에 일익을 도모 하였으며 전자산업 품목중 계측기기의 핵심부품인 소결알니코를 국산화 하였다. 또한 94년 10월에 웨라이트

자석 소성공정중 자성업계 최초로 회전식 2층 가스로 (Roller Hearth Kiln) 설치공사를 하여 공정간의 병목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게 되었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신 국제 품질 보증체제에 부응하기 위해 95년 1월 3일에 스위스의 SGS사로부터 ISO 9001을 인증받았으며, 미국 자동차 3사 중의 하나인 Ford사로부터 제품 품질을 인증하는 Q1 마크를 획득하였다.

우수한 품질과 고객만족의 경을 통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태리를 위시한 세계 선진 20여개국에 걸쳐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제32회 무역의 날을 맞아 5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SMD형 칩 서미스터 개발

태평양시스템

태평양시스템(대표 정승모)이 최근 통신기기 시장의 확대에 수효

가 늘어나고 있는 표면실장부품(SMD)형 칩 서미스터를 내년부터 본격 양산한다.

태평양시스템은 최근온도보상형 수정발진기(TCXO)와 표면실장기술(SMT)형 인쇄회로기판(PCB) 등에 주력채용되는 3216(3.2×1.6mm)타입과 2012타입 등 2종의 SMD형 칩 서미스터를 개발, 내년 6월부터 월 100만개 규모로 생산하고 국내 및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본격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태평양이 개발한 이들 칩 서미스터는 최근 통신기기의 경박단소화가 급진전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제품으로 특히, SMD형 칩 서미스터는 그동안 일본의 시바우라·이시즈카·무라타·오이즈미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돼 온 제품이다.

A4 LBP 개발

현대전자산업

현대전자(정몽헌)가 300dpi의 해상도 10PPM(분당 인쇄속도)의 인쇄속도를 지닌 A4크기 레이저프린터「XLaser Ks」를 개발, 지난달부터 본격시판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명령어를 축약해 실행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32비트 리스크 CPU와 A4용지 2장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2.5MB 메모리를 장착한 제품으

로 분당 10장의 빠른 출력과 인쇄 중에도 컴퓨터 작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CD-ROM 오토체인저 개발

현대전자산업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11월 16일 4배속 CD롬을 내장한 CD롬 오토체인저(모델명 HAS 550)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대전자가 개발한 CD롬 오토체인저는 범용성이 있는 스카시 II 인터페이스를 적용, DOS를 비롯해 윈도, 매킨토시, 유닉스 등의 다양한 컴퓨터환경과 호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PC, 워크스테이션 등 다수의 컴퓨터와 연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제품은 CD롬 타이틀을 비롯해 오디오CD와 포토CD 등 다양한 CD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멀티기능을 갖고 있으며 51장이상의 CD롬 타이틀을 교환, 재생할 수 있도록 여러대의 오토체인저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외함께 현대전자는 51장의 비디오CD를 자동으로 교환, 재생할 수 있는 비디오 CD오토체인저(모델명 HAS 500)를 개발했다.